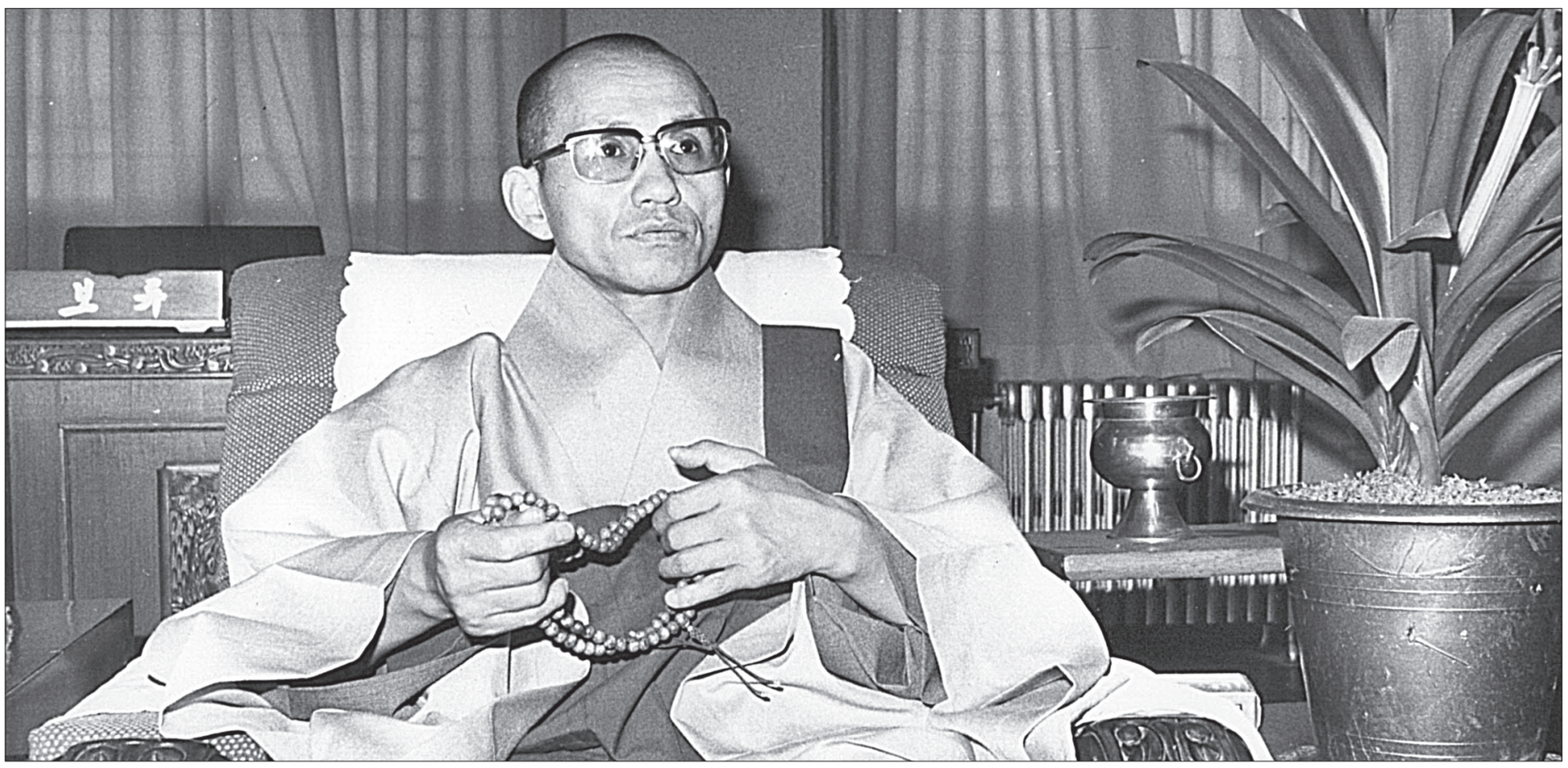


1980년 조계종 제17대 총무원장 시절의 태공 월주 대종사.

월주 대종사의 종단사적 업적

격변하는 시대 속 종단 이끈 불교지도자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현대불교사 관통한 산증인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한국불교현대사를 관통한 산증인이다. 격동의 시기 조계종 수장으로 한국불교 발전의 토대를 일궜던 입지전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특히 조계종 정화 불사와 통합종단 출범, 종단 개혁 등 격동하던 시대적 흐름을 이끈 장본인으로, 종단 개혁 이후 조계종 행정 체계 및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적지 않은 족적을 남겼다.

월주 스님이 종단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첫 행보는 금산사 주지 서리로 임명된 1961년, 정화불사가 한창이던 시점이다. 당시 종단 차원에서 불교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었다. 비구승들은 1954년 6월 불교정화운동발기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금오 스님을 추대했다. 금오 스님은 월주 스님의 은사다. 스님이 정화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의 결과였다.

불교 정화운동에도 적극 매진

당시 금산사는 비구측이 소송에서 패해 대처측이 장악해 있던 시기였다. 총무원장 경산 스님은 27세였던 월주 스님을 주지서리로 임명하며 정화를 위한 행보를 당부했다. 금산사는 130여 사찰을 관할하는 교구본사였기에, 주지는 재단법인 전북불교교원 이사장과 전북종무원장을 겸하는 자리였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열악한 재정까지 떠안은 채 주지소임을 맡게 된 스님은, 사찰 정화와 운영을 위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로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살이 급격히 빠지고 약이 없이는 버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점점 나빠졌다. 그러나 시련은 곧 불교지도자로 급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수행으로 이를 극복한 것은 물론, 한평생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는 추진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금강경〉의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등 모든 것이 허망하고 무상해 실체가 없다는 게송이 그 자체로 확신이 됐다. 월주 스님은 회고록 〈토끼뿔 거북털(조계종출판사)〉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편견과 선입견, 감정에 끄달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는 견해가 생겼다"며 "젊은 시절 이 같은 공부는 이후 종단 안팎의 여러 가지 소임을 보면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흔들이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힘에 됐다"고 술회했다.

종회의원 · 총무원 요직 두루 거쳐

1966년 제2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된 스님은 종단의 중심축에서 역량을 드러냈다. 총무원 교무부장과 총무부장, 조계종 중앙상임기획위원 등 주요 소임을 맡으며 통합종단 출범 이후 종단행정 기틀을 확립하는 데 골몰했다. 2대 종회의원을 시작으로 6대까지 활동했고 제5대 중앙종회의장 소임까지 맡으며 종헌종법의 기본틀을 구축했다.

이 같은 활약상은 1980년 월주 스님이 제17대 총무원장에 취임하는 동력이 됐다. 총무원장이 된 스님은 본격적으로 불교 자주화와 종단 운영의 자율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1979년 10.26사태 등 국가적인 혼란 속에서 민주화 열망이 급격하게 높아졌고, 종단 역시 이로 인한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신군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한 학살로 짓밟았고, 불교계를 향해 지지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월주 스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대가가 바로 10.27법난이다.

개운사에서 총무원으로 향하던 스님은 보안사 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 돼, 20일 넘게 고초를 겪었다. 향후 2년간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난 스님은 타의에 의해 총무원장직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었다. 불과 7개월 만의 일이었다. 10.27법난은 불교계가 정치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근현대 불교역사상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다.

10.27법난 아픔 직접 겪기도

불교계가 군홧발에 유린당하는 모습을 목도하는 아픔을 겪은 월주 스님은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 LA반야사에서 칩거하며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과 종교의 역할을 고심했다. 한국불교는 급변하고 있었다. 종단개혁이 다시금 스님을 종단으로 불러들였다.

10.27법난의 아픔 이후 14년의 세월이 지난 1994년, 월주 스님은 제28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대중선거를 통해 선출된 첫 총무원장이었다.

14년만에 총무원장에 취임한 월주 스님은 '개혁종단'의 수장으로, 무엇보다 종단을 둘러싼 안팎의 문제들을 타파하는 데 공력을 기울였다. 종단 개혁의 완성은 물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굳건한 확신이 토대가 됐다. 종단과 정권간 부당한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쓴 것은 물론, 종단 운영체계를 다지고 승가교육의 기본틀을 정비했으며, 제도 개혁을 토대로 한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같은 성과들은 종단 발전의 기틀이자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다.

월주 스님은 "1994년은 종단사에서 기념비적인 해였다"고 평가했다. 1962년 정화운동을 통해 통합종단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자생적인 힘에 의한 종단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제28대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이끈 1994년은 종단사에서 '개혁종단'으로 일컬어진다. 스님은 종단의 새로운 체제 마련에 주력했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별원으로 만들어 현재의 삼원체제로 확립한 것도 이 시기다.

종단 스님들의 승적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승가고시 제도를 도입해 일정 자격을 갖춘 스님에게만 법계를 부여토록했다. 승가교육체제를 정비한 것도 큰 성과다.

회고록에 따르면 4년간 재임시절 종단에서 집행한 총예산 439억 원 중 승가교육 및 역경기관에 지원한 예산이 136억 원에 달했다. 스님은 "전체 예산의 31%을 투입한 것은 한국불교의 희망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통합종단 출범 후 변변한 체계와 계획이 없었던 승가교육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초(행자교육), 기본, 전문, 재교육으로 승가교육체계를 정립하고 7개 교육기관을 새로 설립해 승가 교육의 질적 변화를 추구했다"고 술회했다. 선원 안거와 전문 교육, 재교육은 현재까지 구족계 수지와 법계, 종무직 취임과 연계한 의무교육으로 자리 잡았으며, 스님들에 대한 연수교육 정례화도 정착됐다. 중앙승가대 학사 이전이 추진된 시기도 월주 스님 총무원장 시기다.

종단 행정 · 운영체계 대대적 정비

월주 스님은 또 사찰운영위원회와 중앙신도회 구성, 교구종회와 산중총회를 제도화했다. 사설사암과 법인 관리 등 3년간 무려 45개의 종법령에 새로운 변화가 일었다. 총무원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까지 본말사 주지를 총무원장이 임명하던 체계에서, 본말사 소속 스님들이 교구본사 주지를 선출하고 총무원장을 이를 임명토록 제도를 개선한 것도 큰 변화였다.

종무행정의 전산화도 일궈냈다. 내외부 혼란으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던 당시 종단의 종무행정은 황무지에 다름없었다. 스님은 당시 재가종무원들의 건의를 수용해 전산정보화 구축 작업을 추진했다. 전산정보화 사업은 불교종합정보망인 달마넷 구축으로 결실을 맺었다. 중앙종무기관과 각 교구 본말사 등 사찰 종무행정 자료에 대한 전산화도 동시에 추진됐다.

이는 가톨릭과 개신교보다 앞선 교단차원의 전산화 성과였으며, 종무행정 체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종단 이끌며 종단 쇄신 일궈

1998년 월주 스님의 총무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종단은 다시 소용돌이에 빠졌다. 월하 스님과 월주 스님의 양강구도였다. 정화개혁회의의 지지를 받았던 월주 스님은 종단 혼란이 거세지자 후보 사퇴 결단을 내린다. 기자회견을 열고 "덕이 출중하고 지혜가 뛰어났다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며 "나의 사퇴로 종단이 안정되길 바란다.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총무원장 중심제를 골자로 한 개혁종단의 종헌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월주 대종사가 종단사에 남긴 업적은 명확하다. 회고록 출간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 역임 당시 미비한 종무행정체계와 법령을 정비하신 공적은 종단이 미래를 내다보고 현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 뜻깊은 성취"라며 "일제강점기와 불교정화운동이라는 격동의 세월을 거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스님의 혜안과 추진력으로 종단은 단단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스님의 족적은 총무원장 당시 주창했던 '깨달음의 사회화' 그 자체였다. 대사회적인 광폭행보는 종단을 넘어 사회를 이끄는 나침반이 됐기 때문이다. 출가 후 40년을 종단 바로세우기에 매진했고, 깨달음의 사회화를 직접 실현하며 우리사회에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던 월주 대종사.

"하늘과 땅이 본래 크게 비어있으니 일체가 또한 부처이구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바로 임종게가 아닌가./ 할"

스님의 임종게가 불교계 안팎을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하는 이유다.



만나고 헤어지는 마음들을 한데 모아
세세생생 저희들 가슴속에 항상 하시길 발원합니다.
큰 나무처럼 버팀목이 돼주신 태공 월주 큰스님,
큰스님 영전에 머리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무주 안국사 주지 보륭 스님 및 사부대중 일동